



미국에서 영화제작 차인표 새로운 도전

‘해븐퀘스트’ 美 킹스트리트픽처스와 공동 제작

“예술인 비자 취득 등 노하우 후배들에 전하고파”

“얼굴도 마음도 잘생긴 배우” 차인표(50·사진)가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제작사 TKC픽처스를 차리고, 영화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영화제작에 뛰어든 것이다. 영화 제목은 ‘해븐퀘스트 :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기독교 고전인 존 버니언의 소설 ‘천로역정’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액션 판타지다. 이달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레딩에서 촬영을 시작했다. 촬영 도중 잠시 켜를 내 한국에 온 차인표를 최근 전화로 만났다. 차인표는 “대뷔 이후 수많은 작가와 프로듀서들의 작품에 출연하며 일자리도 얻고 돈도 벌었다”면서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제가 선배가 됐다. 그래서 은퇴 전까지 이 업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제작사를 차리게 됐다”고 말했다. 영화 ‘해븐퀘스트’는 미국의 신생 영화사 킹스트리트픽처스(대표 댄 마크)와 공동 제작한다. 차인표는 지난 3월 가족을 만나러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갔다가 이 영화에 출연하는 한국계 배우 리키 김의 소개로 댄 마크 대표를 만나 공동제작에 뜻을 모았다. 댄 마크 대표는 미국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던 중국계 이민 4세대. “댄 마크 대표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공통점이 있

중 12명은 아시아인이다. 출연진도 미국, 호주, 덴마크, 멕시코 등 다국적 배우로 꾸려졌다. 한국에서는 차인표와 리키 김이 출연한다. 악이 지배하는 남쪽 왕국을 탈출해 북쪽 왕국으로 가는 주인공 벤젤의 여정을 그린 이 작품에서 차인표와 리키 김은 주인공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인물로 각각 등장한다. 영화는 3부작으로 제작된다. 내년엔 개봉 예정인 1편은 100만 달러 미만으로 제작되지만, 2편은 200만 달러, 3편은 1천만달러로 각각 제작할 계획이다. 차인표는 왜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먼저 택했을까. “제가 이 나이에 미국에서 스타가 된다면, 오스카상 받기를 꿈꾸겠습니까. 다만, 운 좋게 이런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16~17년 전만 해도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히트할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없었죠. 저는 미국에서도 중국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현재 수많은 영화가 아시아 자본으로 제작되고, 인구도 아시아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아시아의 허브가 한국인 만큼, 한국 배우들이 미국영화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는 “그동안 이병헌, 배우나처럼 몇몇 훌륭한 배우들만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배우들이 못한 것이 아니라 시도를 안 한 것 같다”면서 “예술인 비자(O-1) 취득 등 이번 영화를 통해 알게 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차인표는 8월 말 영화 촬영이 끝나고 한국으로 복귀하면 영어 연기에 관심 있는 후배들을 모아 스터디 그룹을 만들 구상도 세웠다. 미국 영화 제작과는 별개로 국내 작품에도 꾸준히

출연할 계획이다. 차인표는 올해 16분짜리 단편영화 ‘50’의 주연과 연출도 맡았다. 오는 13일 개막하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초청된 이 영화는 아이와 아내를 미국에 보내고 홀로 남은 주인공이 동네 헬스 트레이너로 취직하지만 젊은 트레이너에게 밀린다는 내용으로, 가정과 삶의 중심에서 밀려난 중년 가정의 쓸쓸한 일상을 다뤘다. 차인표는 “남자 나이 손이 되면 신체기능과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며 “사실 저 자신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라고 말했다. 그의 부인 신애라는 2014년 3남매를 데리고 미국 유학을 떠나 현재 미국에서 기독교 상담학으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1993년 MBC 22기 공채 탤런트 출신인 차인표는 1994년 MBC ‘사랑을 그대 품 안에’로 일약 스타로 발돋움했고, ‘별은 내 가슴에’(1997)로 절정의 인기를 누렸다. 이후에도 MBC ‘왕조’(1999), ‘불꽃’(2000), ‘영웅시대’(2004), ‘하얀거탑’(2007) 등으로 끊임없이 연기 변신을 해왔다. 지난해는 KBS 주말극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라미란과 부부로 나와 코믹 연기를 선보이며 인기를 얻었다. 지난해 말 KBS 연기대상에서 라미란과 베스트커플상을 받은 차인표는 “오심을 살면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남편은 결코 부인을 이길 수 없다는 세 가지를 깨달았다”는 수상 소감을 밝혀 화제가 됐다. 차인표는 연기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장편소설 ‘잘가요 언덕’을 내고 소설가로도 데뷔했다. 사회적으로도 신애라와 함께 해외 아동 52명을 직접 후원하는 등 사람과 나눔 실천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제가 제일 행복할 때는 창작할 때와 사람들에게 나눌 때인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창작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며 웃었다. /연합뉴스

김영철 “문대통령과 독일 순방 영광”

‘파워 FM’ 진행 중 소감 밝혀

개그맨 김영철(사진)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순방길에 함께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독일에 가서 교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해 화제가 됐다. 김영철은 10일 오전 SBS파워FM(107.7MHz) ‘김영철의 파워 FM’을 진행하면서 “누구한테나 잊지 못할 도시가 있다. 2017년 독일 베를린은 꿈같은 일이 펼쳐진, 세계는 영화 같은 도시가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간담회에 독일 교민 200분이 오셨는데 이때 제가 진심을 흘리고 있자 대통령께서 ‘여러분, 김영철 씨가 여기서 사회를 보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이 다’라고 분위기를 띄우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 때 자신의 노래 ‘따로름’을 불렀다며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는데 많은 분이 저를 잘 모르셔서 장내가 조용해졌다”고 당황스러웠던 일화도 전했다. 김영철은 행사가 끝난 후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수고 많았다고 격려해줬다며 “떨려서 눈도 잘 못 마주쳤고 우리 라디오에 한번



모시고 싶다는 말도 미처 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가문의 영광이다’, ‘출세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며 “외국에서 간담회도 하고 노래도 하는 경험은 두 번 올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영철은 앞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문 대통령과 독일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제가 살면서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요”라며 “독일 교민과 함께한 행사 때문에 전용기도 다 타보고, 무사히 행사 마치고 마지막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는 중”이라고 소감을 전한 바 있다. /연합뉴스

그룹 ‘샵’ 출신 이지혜

“올 가을 결혼 합니다”

혼성그룹 샵 출신 이지혜(37·사진)가 가을에 교제하는 남자친구와 결혼한다고 밝혔다. 이지혜는 10일 인스타그램에 “저의 결혼 소식이 있어서 글을 올린다”며 “예비 신랑은 평범한 사람이고,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종교가 없음에도 함께 해주는 마음이 훈남인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아직 상견례를 하지 않았으면서 “나이가 있어서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낙엽이 시작될 때쯤 시집을 가려고 한다. 잘 준비하고 결혼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지혜는 1998년 샵으로 데뷔한 뒤 솔로 가수로 나섰으며 현재 각종 예능 프로그램



에서 활약 중이다. 예비 신랑은 세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동MBC 뉴스투데이 50 윤창 조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좌충우돌 만국유람기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재) 50 UHD 한국의 유산	00 1대 100 (재)	50 빛날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 스페셜 40 잃어버린 종고 아니면 냄비반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합설계 (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2017 서울 국제 유스 양궁 패스타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15 텔레몬스터 25 독?목! 키즈스쿨 55 수빈 스토리 2	00 뉴스브리핑
3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별별머느리(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재)	00 MBC 뉴스M	00 영재발굴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엽기적인 그녀 (재) 45 날씨와 생활 50 교향견문록 남도에 살아리랬다
7	00 KBS 뉴스 7 35 리얼토크, 날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별별머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애 한밤
9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쌤, 마이웨이	00 파수꾼	00 엽기적인 그녀
11	00 KBS 뉴스라인 40 UHD 특집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잃어버린 종고 아니면 냄비반찬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독립영화관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 24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태평양 섬문화 기행 - 태초의 자연을 만나다 로마〉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이디 비그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맨1~2 08:00 당동당 유치원1~2 08:45 부릉!부릉! 부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융감한 소방차 레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성난 물고기(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생선튀김과 송편〉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 〈피아노 치던 손으로 글 쓰는 머느리〉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메디컬 다큐-7요일(재) 13:40 장수의 비밀(재) 14:30 레이디비그 15:00 요술 상자 15:05 내 친구 아서
15:20 우주탐험가 켓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시계마을 타기투!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두다다콩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17:15 얼마 까투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너티너츠 19:30 EBS뉴스 19:55 극한직업 20:50 세계테마기행	〈이 보다 좋은 수(水) 없다 태국 - 기차 타고 합평 타고〉 21:30 한국기행 〈인생은 로드무비 - 흐르는 강물처럼〉 21:50 EBS 다큐프라임 〈생명의 해류 2000km - 한반도 해류의 비밀〉 22:45 글로벌 이빠! 해유! 삼만리 23:35 메디컬 다큐 - 7요일 〈신앙이중환자실 외 2편〉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24:30 한국영화특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1일(음 윤5월 18일 己亥)

子

48년생 물처럼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함께 하자. 60년생 가희, 골목상대할 만하다. 72년생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거든 가부 친반의 입장을 분명히 해 두어야만 할 것이다. 84년생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2, 48

丑

49년생 구관이 명관이요, 노물이 새 것보다 낫겠다. 61년생 장기간에 걸쳐 계속 될 것이니 각오해야겠다. 73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좋다. 85년생 잦은 기회를 하려시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2, 67

寅

50년생 처음으로 대하는 이나 기회와의 인연이 기대된다. 62년생 확실히 끊고 맺어야만 후환을 없앨 수 있다. 74년생 벼락 치게 서둘러야만 겨우 이룰수 수 있을 것이다. 86년생 서로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94, 13

卯

51년생 일생일대에 있어서 그 어느 때 보다 보람찬 하루가 될 것이다. 63년생 참된 가치와 함께 하자. 75년생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좁혀 들어오는 판국이다. 87년생 선택을 잘 못한다면 굴레를 뒤집어쓰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0, 58

辰

52년생 의무만을 내세우지 말고 직접적인 일부터 하자. 64년생 무시해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76년생 너무 앞서지 않았는지 살펴 볼 일이다. 88년생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억지로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다. 행운의 숫자 : 15, 58

巳

53년생 안간힘을 다하게 되는 막바지에 이르렀느니라. 65년생 대를 구명으로 하늘을 보려는 이치이다. 77년생 가본적인 것에 충실 하는 것이 실속 있다. 89년생 드러나지 않은 정황까지 인식할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61, 18

午

42년생 모순점은 확실히 배제해 두자. 54년생 까다로운 관문이 기다리고 있으니 각오하고 임해야 할 것이다. 66년생 목표를 향해 진일보하라. 78년생 확실히 펼쳐야 할 도량이다. 90년생 순리에 역행한다면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34

未

43년생 길사의 성립 조건들이 마련되어 간다. 55년생 미진한 바가 허다하니 다른 방법을 택함이 현명하다. 67년생 치우치게 되면 후유증이 발생하리라. 79년생 본 뜻대로 해도 아무렇지 않다. 91년생 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01, 80

申

44년생 밤식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니 빈틈없이야만 한다. 56년생 돈 때문에 울고불고 하리라. 68년생 평온한 가운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니라. 80년생 외부적인 면까지 신경 써야 효과를 본다. 행운의 숫자 : 49, 33

酉

45년생 감정을 배제해야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57년생 신뜻한 새 모습으로 과감하게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69년생 바탕이 탄실해야 진행에 차질이 없으리라. 81년생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0, 10

戌

46년생 중심을 잡지 않으면 혼돈에 빠지리라. 58년생 전체와의 조화를 꾀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70년생 운색된 이면에는 검은 부분이 숨겨져 있느니라. 82년생 하찮다고 여겨왔던 것 속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1, 62

亥

47년생 애매하다면 가만히 놔두는 것이 유리하다. 59년생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겨야겠다. 71년생 끝까지의 차차적으로 정확하게 핵심을 쫓아야 할 때가 되었도다. 83년생 현장 감각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4, 3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